무주군, 산불피해 지역 복원 최선

인력·장비 투입 재진화 위험 요소 차단… 공무원 비상근무·예찰 강화

무주군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산불이 발생했던 부남면 피해지역 일대 복원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산불이 발생했던 부남면 피해지역 일대 복원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피해지역은 부남면 대소리 일대 산불영향 지역 포함 93ha(소실 면적 20ha)로 지난 30일까지 임차 헬기 2대와 산불진화대, 공무원 등 하루 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잔불 확인 등 재진화 위험 요소들을 제거했다.

산불 발생 지역은 인공조림 등을 통해 복원에 힘쓰는 한편, 토사유출과 산사태가 예상되는 곳을 찾아 우기 전 응급 복구를 마칠 계획이다.

또 5월 15일까지 군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산불 근무와는 별도로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매일, 무주군 소속 전 공무원 1/4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평일은 퇴근 이후인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공무원들은 산불 예방은 물론, 화재 발생 시 상황 전파와 진화 등 개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1마을 1담당 마을 출장'을 통해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한 예찰을 강화하고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영농 폐기물이나 논·밭두렁을 태우는 등의 불법소각 행위도 근절할 방침이다.

이번 부남면 산불 시에도 황인홍 무주군수 지휘하에 3일간 간 공무원 344명과 진화대 104명 등이 산불 투입됐으며 소방과 경찰 인력까지 총 7백여 명이 진화에 동참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섭게 번지는 불길을 잡기까지 내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라며 "하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불 현장 진압과 물품 공급, 구호 등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준 공무원들과 전북도를 비롯한 소방과 군부대, 경찰, 산림청 등 협력 기관 관계자들의 헌신이 있어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감사와 안도를 전했다.

이어 "모두가 한마음이 돼 지킨 무주가 크든 작든 다시는 불길에 휩싸이는 일이 없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적상산과 덕유산 등 국립공원을 비롯한 산림이 전체 면적의 82%차지하는 곳으로, 산림 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 감시 및 진화대를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해 입산 통제구역 관리를 비롯한 소화시설 설치 및 점검에 주력하고 있으며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통해 불법소각 근절에도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산불 진화 차량을 이용한 '산불조심' 가두방송을 벌이며 향로산 자연휴양림(통나무집)과 문화재 시설(북고사) 등 주요 시설물 근처에는 초기 진압을 위한 산불소화 시설도 설치·점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 밤 9시 28분 개인주택 저온저장고 전기 누전으로 발생해 인근 산으로 번지며 20ha를 태운 무주군 부남면 지역 산불은 28일 오전 11시 30분 최종 불길이 잡혔다.

3일간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된 인력은 7백여 명이며 헬기를 비롯한 진화 차량 등 장비가 70여 대, 그리고 등짐펌프 등 물품이 7백여 개로 집계됐다.

산불 영향권에 들며 26일 화재 발생과 함께 부남면 다목적 광장과 대치마을회관 등지에 대피했던 대소마을과 율소마을 주민 136명은 28일 새벽 모두 귀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신광재' 산악관광진흥지구 민간 투자 유치 발품 행정

전춘성 진안군수, 모나 용평 임학운 대표와 만남으로 유치 홍보

진안군은 작은 알프스라 불리는 백운면 '신광재' 일원에서 추진하는 산악관광진흥지구의 민간 투자자 유치 활동에 첫발을 디뎠다.

전춘성 군수는 지난달 26일~27일까지 평창을 찾아 모나 용평 임학운 대표와 직접 면담하고, 진안군의 대표 복합개발사업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에 대한 진안군의 밑그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투자 유치를 위한 발품 행정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전 군수는 진안IC와 진안을 대표하는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진안읍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와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신광재 일원의 개발 여건과 개발 방향에 대해 공유하며, 진안군의 잠재된 개발가용 부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모나 용평 임원진은 "진안군의 잠재된 가치에 대해 알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다시 한 번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진안군의 관광개발사업이 또다른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진안군의 지역인구소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악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절실한 만큼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해 발로 뛰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탄력

장수군, 시범사업 공모 선정… 2027년까지 30억원 투입 조성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단지가 조성된 시·군에 주소나 직장을 두지 않은 시민들에게 소규모 주거시설 20동과 텃밭 및 공용쉼터 등을 제공해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시민의 증가하는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여가 겸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4도 3촌(4일 도시, 3일 농촌)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번 선정 평가는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단지 내 시설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계획 △단지 운영·관리 계획 △생활인구 유입 등 기대효과 등이 고려됐으며 특히 장수군은 명확한 조성 목표와 주제로 여러 연계된 사업을 복합 추진한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수군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30억원(국비 15억, 지방비 15억)을 투입해 장수읍 노하리 788-7번지 일원에 소규모 체류시설(33㎡) 20호와 함께 산림휴양 및 건강치유 개념을 접목한 치휴(休)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사업부지 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추가 연계사업을 추진해 휴식·레저를 위한 공원, 워케이션시설, 주거단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이 농촌에 머물며 영농체험, 여가,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장수군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농촌 생활인구 증가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다양한 영농 및 여가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류시설 임대대상은 '4도 3촌 라이프'를 실천할 수 있는 도시민이며 임대기간은 1년으로 연간 50일 이상 방문 조건을 특약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지원

무주군이 2025년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지원사업은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향상 아이디어를 가진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융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무주군은 융자금 총 17억 470만 원을 고정금리 1%(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무주군은 3월 25일 융자 대상 농업인 58명, 농업법인 2곳을 확정했으며 4월 1일부터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를 통해 대상자의 신용 상태 및 담보 능력을 확인한 뒤 지원할 예정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윤수진 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추진력을 얻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 기후변화 속에서도 거뜬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 지속 가능한 무주농업이 가능해지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학교 흡연예방 '창작 뮤지컬' 공연 호응

진안군은 지난달 31일 부귀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을 위한 '창작뮤지컬' 공연을 실시했다.

흡연예방 창작뮤지컬은 창작극단을 초청하여 퀴즈, 상황극, 장기자랑 등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공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흡연에 대한 위험성과 예방, 금연 실천 방법 등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 뮤지컬로써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상황으로 구성되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진안군은 앞으로 오는 5월까지 관내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창작 뮤지컬을 활용한 흡연예방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소방서, 봄철 산불 주의 당부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논·밭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금지를 당부했다.

최근 경북, 울산 등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인해 최고 단계 국가 소방동원령 3단계가 발령되는 등 국가 비상대응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며 수만 ha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불의 주요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이며, 특히 농업 부산물 소각이나 등산객의 실화가 대표적인 발화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소방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및 불법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자의 지정장소 외 취사행위 및 흡연 금지 △입산 시 허가된 장소 이용 △산행 시 화기 및 인화물질 미소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신고 등을 당부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소 럼피스킨 예방 백신 일제접종 실시

장수군은 4월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관내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소 럼피스킨 예방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매개곤충 활동 전 럼피스킨에 대한 방어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773개 농가 3만 1천여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다만 이번 접종에서 아픈소, 출생 3개월 미만 송아지, 7개월 이상 임신말기 소는 접종이 유예되어 군이 별도로 관리해 추가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50두 미만의 영세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가 접종을 지원하고, 50두 이상의 농가는 자체적으로 접종을 실시하며 백신은 사육 규모에 상관없이 무료로 공급한다.

소 럼피스킨은 고열, 피부 및 점막의 결절 등의 증상을 보이며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흡혈곤충을 통해 주로 전파되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감염 시에는 식욕 부진, 유산,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